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국민학교 집단잇솔질사업-

방 태 현*

I.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유치(젖니)에서 영구치(간니)로의 치아교환기
에 있는 국민학교아동연령층을 대상으로 옳바른
잇솔질방법을 교습하고 습관화시킴으로써 치아우
식증(충치)과 치주질환(잇몸병)을 조기에 예방함
과 아울러, 구강보건교육 및 계몽을 통하여 구강
보건인식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자발적인 자기구강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여 평생토록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 및 보존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경기도 가평국민학교 1~6학년 아동 1,600여명
을 대상으로 1989~1990학년도 2년간에 걸쳐 시
행하고 있다.

(3) 사업방법

개인별 치솔, 치약 및 양치컵을 교실에 보관,
비치하여 아동들이 점심식사후 학급별로 담임교
사의 인솔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잇솔질을 실천하
게 함으로써, 가정에 돌아가서도 매 식사후에 잠
자기전에 옳바른 잇솔질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에 필요
한 구강위생품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학교실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실시이전의
예비구강 검진과 1년간격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
여 사업효과를 비교평가하고 있다.

(4) 사업의 의의

지역 사회의 공중구강보건영역에 있어서 학교구
강보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
다. 학교구강보건은 주로 국민학교단위로 이루어
지는데 국민학교 아동연령층에 대한 구강보건관
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평생토록 사용
할 영구치료의 치아교환기에 있는 성장발육아동
으로서 특히 치아우식증 이환율이 높은 연령층이
므로 이 시기의 구강건강관리여부가 평생의 구강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대치과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
섭취후 옳바른 잇솔질로 알려져 있는데, 매 식사
후 3분이내, 3분간씩, 1일 3회이상의 잇솔질을 권
장하고 있다. 따라서 간식섭취횟수가 빈번한 국
민학교 아동들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
이 철저한 구강위생, 즉 옳바른 잇솔질의 실천이
므로 국민학교집단잇솔질사업은 효율적인 집단예
방관리라고 볼 수 있다.

II. 사업의 현황

사업실시이전단계에서 아동들에 대한 기초구강
보건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동들의 구강보건지식도
및 행동양식을 조사하여 구강보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계적인 구강보건교육

*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

을 실시하고 있다. 구강보건교육은 사업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동들을 일선에서 지도할 담임교사들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의 취지와 내용, 아동들에 대한 구강보건지도방법을 설명하였다. 한편, 아동들의 사전구강검진결과와 가정에서의 구강보건지도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연계적인 구강보건지도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각 학급별로 남녀 1명씩의 양치조장을 선발하여 매일 굽우들의 잇솔질여부를 준비된 양치상황부에 기록토록 하여 매주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고, 월말에는 개인별 양치상황기록표를 배부하여, 매일 식사후와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고 학부모의 확인을 받은 결과를 개학후 학습별로 양호실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구강검진결과를 토대로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전치아동 및 구강보건실천우수아동을 선발하여 한국구강보건협회에 표창을 의뢰, 시상함으로써 아동들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가을 학기에는 매년 한국구강보건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구강보건계몽 글짓기대회에 전교생이 자신의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경험담을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천성향상에 기인하도록 하여 다수작이 입상하는 결과를 냉았다.

보사부에서 제작된 ‘이닦기의 노래’ 녹음테이프를 점심시간중에 스피커를 통해 틀어주어서, 아동들이 행진곡풍의 노래에 맞추어 즐거운 가운데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심시간이 없는 1학년 아동의 경우 아침에 등교후 수업시간이전에 잇솔질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사정상 오후반이 편성될 경우에는 역시 등교하여 수업시간 시작이전에 잇솔질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천시에는 실내 세면장등에서 개인별로 잇솔질을하도록 지도하였다. 아동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반드시 잇솔질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에 돌아가서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인식을 주지시키도록 하는 다분히 교육적인 방향을 의도하

였다.

III. 구강보건교육

본 사업의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동들의 실천성 여부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들이 얼마나 이를 잘 닦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이닦기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간, 근시안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계몽교육을 통한 계속적인 습관형성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업자체의 내면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할 ‘구강보건교육’이라는 필수적인 교육직무소가 존재하고 있다.

아동들의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치아모델과 대형치솔을 이용하여 옮바른 잇솔질방법의 설명과 실습이 진행되었다. 또한 구강보건계몽교육제도를 이용한 치과질환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문답식교육이 병행되었다. 각 학년의 연령수준에 맞는 각종 구강보건교육용 시청각자료—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등—를 이용한 시청각교육도 실시하였는데, 다소 아동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복도에는 구강보건계몽포스터를 게시하여 아동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강보건계몽전단을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하여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편달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구강보건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을 위주로 하여 실시되었다.

(1) 구강보건행동

이닦는 빈도 : 1일 3~4회

이닦는 시기 : 매 식사후와 잠자기 전

이닦는 시간 : 1회 3분이상

잇솔질방향 : 윗니—위에서 아래로

아랫니—아래에서 위로

씹는면—앞뒤로 닦는다

잇솔질 부위 : 잇몸부터 시작하여 이까지 닦는다. 혀도 닦는다

치솔사용기간 : 3개월 이내

(2) 구강보건의식

충치발생이유지각 : 음식물찌꺼기와 세균이 치아를 녹인다.

충치 예방법 : 옳바른 이닦기

당분포함한 간식 섭취 제한등

조기치료 및 정기적인 치과방문 :

치아나 잇몸이 아플때는 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아픈 치아가 없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치과에 가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구강보건인식 도증진을 위한 단계적인 교육이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구강보건교육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적달성과정으로 정의되어진다.

보편적으로 교육활동이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내용-교육과정과 교재-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루었을때 성립된다고 볼 때, 구강보건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매개물을 통한 반복적인 접촉에 의하여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소정의 교육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은 피교육자의 행동양식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를 밟는 실천적 작업이므로, 교육자에게는 구강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지역사회의 요구도와 시대적조류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민학교 보건교육과정에 있어서 구강 보건교육에 관한 내용과 할애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양호교사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 만큼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앞서 말한 바가 있듯이 국민학교 아동의 구강보건관리가 중요한 만큼 구강보건전문인력의 지원하에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노망된다.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

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절대부족한 상, 하수도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용하여, 다수의 인원이 주어진 시간내에 잇솔질을 완료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개인별로 이를 닦은 후 양치할 물을 각 학급별로 조장들이 주전자를 이용하여 분배할 수 있었으나, 양치한 물을 뺏어낼 장소가 여의치 않았다. 사업 1차년도에 해당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에 하수도시설 보완요청을 하여서 배수로가 일부 보충되었으나, 질서를 지켜서 주어진 시간내에 잇솔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관리에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사들의 협조도와 아동들의 실천의지가 비교적 높아서 부족한 제반여건하에서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능률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상, 하수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향후 이러한 국민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잇솔질사업에 있어서는 학교의 시설기준과 주변환경요건등을 고려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급, 배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업의 내용상 책임의 한계가 최종적으로는 일선담임교사들에게 돌아감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업무량을 안고 있는 일선교사들의 입장에서 휴식을 겸한 점심시간에 하나의 잡무를 더얹어놓은 격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학교장 이하 양호교사는 물론 각 담임교사들의 성의와 노고가 아동들의 조기습관형성이라는 교육적인 견지를 지향하였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의 중간평가단계에서 실시한 일선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동들의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잇솔질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동들의 구강건강이 많이 향상되었고, 아동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학교보건교육의 일부로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특히 아동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수행할 용의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다.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을 당시, 국민학교 새마을 어머니회에서는 전 학부모들의 견해가 아동

들의 구강보건행동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계속해서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특히, 농업·상업등 생업에 바쁜 나머지 자녀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없었던 다수의 학부모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할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문제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준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호응도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부모들의 경우 치과질환은 ‘질병발생이후의 증상에 대한 치료’로 생각했던 것이 ‘질병발생이전의 예방 및 통통발생이전의 조기치료’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의 구강건강관리는 학교와 가정의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업이 지역사회 국민학교단위에서의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무엇보다도 먼저 보건기관과 교육기관사이의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는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와 이해와 관심을 가진 교육청 사회체육계의 역할 또한 매우 컸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국민학교이므로 사업이 확대되고 발전되기 위하여서는 관할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권장과 더불어 문교부 보건교육관계담당부서의 후원이 뒤따른다면 더욱 실효성있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건사회부와 문교부 및 일선 보건기관과 교육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지역사회단위의 구강보건사업을 부단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선진사회로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